



철저한 위생관리로 청정종돈을 공급하는 경남 하동 활천농장

취재 : 정재은

부산경남양돈농업협동조합(이하 부경양돈농협)은 경남지역 양돈농가에 우수한 종돈을 보급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가야육종을 GGP농장으로 산하 5개 GP농장을 통해 종돈공급 체계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경남 하동의 활천농장(대표 이대호, 57세)은 가야육종의 5개 GP농장의 하나로서 영국의 JSR 계열의 후보돈을 생산하여 부경양돈농협 조합원과 주변 양돈농가에 청정종돈을 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활천농장의 경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질병 발생이 거의 없으며, 강건하고 성적이 높은 종돈을 생산해 내고 있다.

였으며, 1989년에 하동으로 이전을 하였다. 1991년~1997년에 분회 공인종돈능력검정소로부터 최우수종돈장 3회, 우수종돈장 8회를 수상하였다.

활천농장의 돈사는 기존에 있던 임신사 3개동(스톨 600개), 분만사 1개동(분만틀 44개), 자돈사 1개동, 육성·비육사 4개동 총 9개동의 개축과 더불어 2000년 신축한 교배사(AI실 포

활천농장의 역사 및 구성

■ 기계식 무창돈사 신·개축으로 규모 확대

활천농장(대표 이대호)은 1983년 김해에서 종돈장으로 출발하



▲ 활천농장 입구에서 이대호 대표(맨 좌측), 한상각 상무(좌측에서 두번째)와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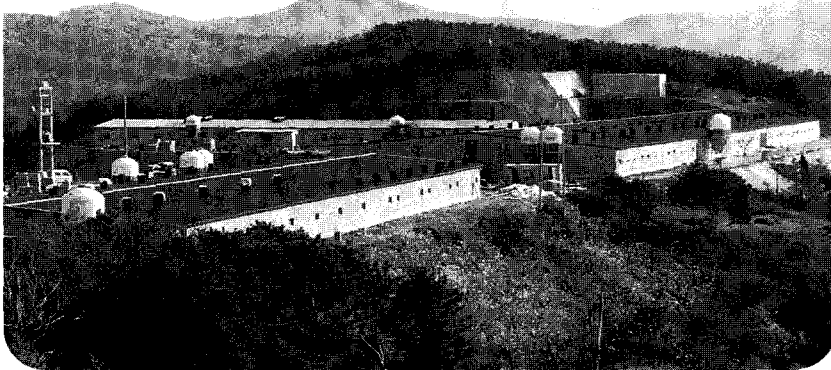
■ 사육 및 생산 규모

2004년 5월 현재 순수 모돈 1,230두 규모(전체 사육두수 15,000두 정도)로 월 종돈 판매 680~700두 수준, 월 비육돈 출하 1,700두, 상황에 따라 월 200두 정도의 자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후보돈은 13% 수준인 160두 정도를 확보해 놓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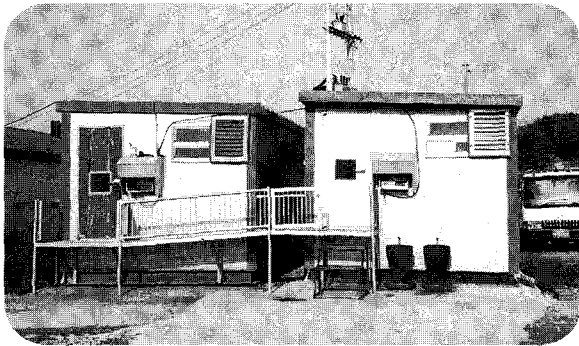
있어 기복 없는 생산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신축된 돈사는 전체 돈사의 64%에 해당되는데 신축된 돈사에서 전체 돼지의 75% 수준이 사육되는 집약적 관리를 하고 있다.

우수한 종돈 생산을 위한 노력

활천농장은 영국의 JSR 계열의 백색계 후보돈을 생산하고 있다. 이 종돈의 특징은 산자수가 매우 높으며, 포유능력이 대단하여 새끼를 키워내는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 전체



▲ 지난 2000년 기계식 무창돈사로 신축된 번식사, 자돈사, 육성·비육사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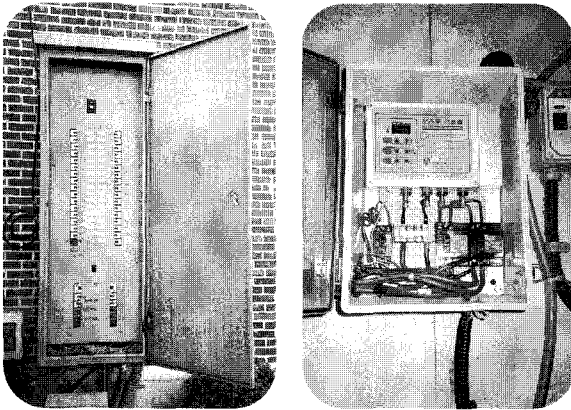
▲ 허약한 이유자돈을 돌볼 수 있는 인큐베이터.

합, 195평) 1개동, 임신·분만사 1개동(573평, 스톨 390개, 분만틀 192개), 자돈사 1개동(377평), 육성·비육사 1개동(1,300여평) 총 4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허약한 이유자돈을 돌볼 수 있는 인큐베이터 2개동이 있다. 지난 2000년 신축 내지는 개축한 돈사 시설은 정부의 종돈계열화 사업의 일환으로 정책자금 37억원(시설자금 29억원, 경영개선자금 8억원)의 지원이 있었다.

한편 활천농장은 돈사를 최신 기계식 무창돈사로 신·개축하여 규모를 대폭 늘렸으며, 환기량과 온도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자동조절로 환경관리가 되고 있으며, 세심하고 철저한 사양관리를 통해 우량종돈을 생산해 내고



▲ 활천농장은 1991년~1997년에 분회 공인종돈능력검정소로부터 최우수종돈장 3회, 우수종돈장 8회를 수상하였다. 아울러 2003년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으로 인증되었다.



● 활천농장에서는 환기량과 온도 등 자동조절로 환경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돼지 중 40% 정도가 선발되고 있으며, 유전적으로 우수하며, 사육환경이 깨끗하고 뛰어나 믿을 수 있는 종돈을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종돈 선발시 체형과 유두상태, 외음부 크기, 지체 균형 및 강건성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

한편 종부 직전의 후보돈을 1개월 가량 격리사에서 따로 관리를 하여 구충과 백신 등 예방접종 크리닝, 건강 점검을 받도록 한다. 그 후에 1개월 가량 방목장에서 지체 강건을 위한 훈련을 거친 후 교배사로 이동하게 된다.

경남지역 청정종돈 보급에 앞장서는 활천농장

활천농장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하루에 2회 소독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출하차, 종돈수송차, 사료 및 약품 수송차, 분뇨처리차, 방문차 등 모두 농장입구에서 자동 분무 시스템을 통한 소독과 함께 수동으로 차량 하부 소독까지 빠뜨리지 않고 있다. 아울러 농장 입구에서는 물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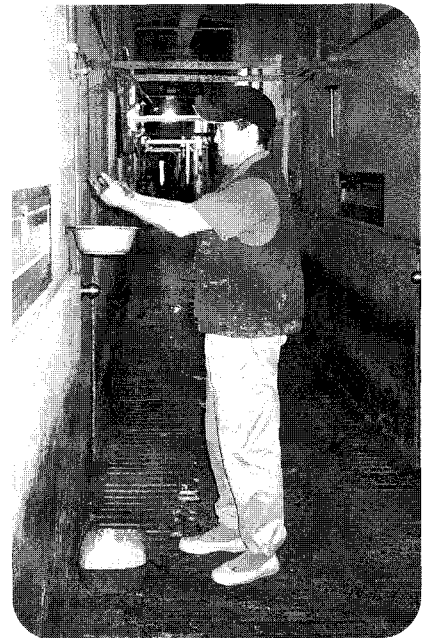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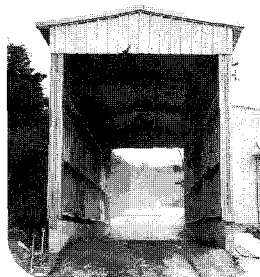
이고, 분만사의 경우에는 뱃치마다 손 소독을 하게 되어 있으며, 돈방별 발판소독조가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관리와 올인올아웃 시스템과 체계적인 백신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질병이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 타 농장에 비해 생산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하지만 철저한 위생관리로 청정종돈 보급에 앞장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종돈생산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질병 예방대책과 사육단계별 체계적인 방역프로그램으로 일괄 사육시 문제되는 돼지위축성비염, 마이코플라즈마, PRRS, 브루셀라, 오제스키, 특소플라즈마병, 돼지적리, 돼지옴 등 8가지 질병에 대한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는 등 고품질의 청정돈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작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으로 인증되었다.

활천농장은 위생적이고 고능력의 종돈을 부경양돈농협 조합원과 경남지역 양돈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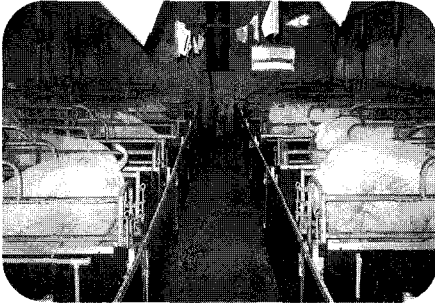
▶ 분만사의 경우에 뱃치마다 손 소독을 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철저한 위생관리로 질병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 모든 차량은 활천농장 출입시 자동 분무시스템을 통한 소독은 물론이고, 수동으로 차량 하부까지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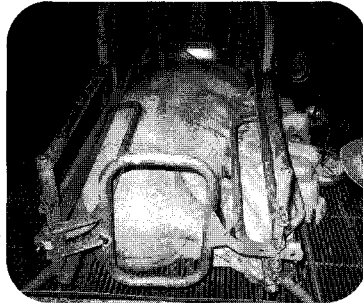




▲ 활천농장 교배사 전경. 종부 직전의 후보돈을 1개월 가량 따로 관리를 하여 구충과 백신 등 예방접종 크리닝, 건강 점검을 받도록 한다. 그 후에 방목장에서 지체 강건을 위한 훈련을 거친 후 교배사로 이동하게 된다.



▲ 분만사 전경. 무창돈사를 통한 균일한 환경조성과 영국 JSR 계열의 백색계 모든 품종 특유의 높은 산자수와 이유능력으로 활천농장의 생산성적은 매우 뛰어나다.



● 활천농장의 경우 보정분만을 90.3%, 모돈회전을 252, 이유육성률 90.3%, 이유자돈수(PSY)가 24.4두에 이르고 있다.(2003년 평균)



▲ 자돈사 전경. 이유자돈들의 성장정체와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료섭취가 용이하도록 보조사료통(우축)을 활용하고 있다. 적음이 된 자돈들은 자연스럽게 좌측의 사료통에서 사료를 섭취하게 된다.

정확한 성적분석으로 생산성과 경쟁력 높여

활천농장은 제대로 성적을 분석함으로써 생산성을 크게 높였으며, 이는 부경양돈농협 양돈지원실의 협조로 가능하였다.

시설과 사양 및 위생관리가 잘 되고 있는 활천농장의 경우, 종돈장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산성적을 보이고 있다. 2003년 평균을 살펴보면 보정분만을 90.3%, 평균 비생산일수 33일, 모돈회전을 252, 이유육성률 90.3%, 이유자돈수(PSY)가 24.4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여름철 성적이 매우 좋은데, 무창돈사를 통한 균일한 환경조성과 모든 품종 특유의 높은 산자수 및 이유능력에 그 원인이 있다. 또한 한상각 상무가 주간별 교배두수, 분만두수, 출하량, 후보돈 입식계획 등 농장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철저히 기록하고 성적을 분석하여 농장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잘못되었을 때는 바로 시정해 나가고 있다.

팀별로 효율적인 인력구성과 성과급 제도 도입

활천농장의 경영 중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직원들이 젊다는 점이며, 팀별로 효율적인 인력구성이 되어 있다. 이대호 대표, 한상각 상무, 이원형 농장장과 종부팀(4명), 분만팀(4명), 육성팀(4명) 총 15명의 인원이 농장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1명이 야간 순찰을 함으로써 밤에도 돼지의 상태를 살펴보는 등

사전에 사고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

이대호 대표와 한상각 상무, 이원형 농장장은 돼지상태, 온도·환기, 사료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며, 작업결과를 체크한다. 중부팀(팀장 이흥근)은 교배와 임신진단을, 분만팀(팀장 노준호, 2명은 여성으로 구성)에서는 포유돈 관리를, 육성·비육팀(팀장 유형수)에서는 종돈과 비육돈 관리를 하고 있다. 이처럼 분야별로 나뉘어져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농장 일을 해나가고 있다.

또한 직원들은 각 담당별로 일정계획을 세우고, 매일 업무일지를 기록한다. 오늘 무슨 일을 했고 내일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확인하고 있으며,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고 찾아서 하고 있다. 한편 활천농장은 직원들에게 사택 제공, 진주산업대학교 진학시 장학금 지원 등을 하여 복지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팀별로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상반기·하반기 1년에 2번 결산을 하여 성과급을 제공하고 있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친화적이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활천농장

활천농장은 조경이 잘 되어 있다. 농장 주변을 홍단풍, 만리향, 백일홍 등으로 가꾸어 놓았고, 농장 내부도 매실, 살구 등 유실수가 심어져 있어 환경친화적인 양돈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주변 이웃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원을 통해 양돈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등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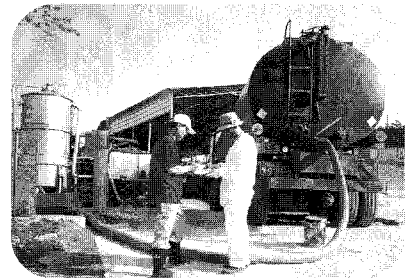
활천농장은 가야육종의 GP농장으로 F1 전문생산 종돈장으로서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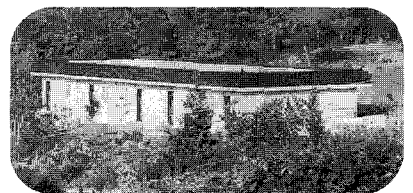
▲ 직원이 출하를 앞두고 있는 종돈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활천농장은 유전적으로 우수하고, 사육환경이 깨끗하여 믿을 수 있는 종돈을 공급하고 있다.

전적으로 우수하고 청정한 종돈을 보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대호 대표는 하동 지역 양돈산업 발전과 지역 양돈인간의 유대강화, 방역관련 활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꾸준히 해왔다.

그밖에도 이대호 대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이명장학회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북천면 면지편찬 사업 등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양돈인들의 위상과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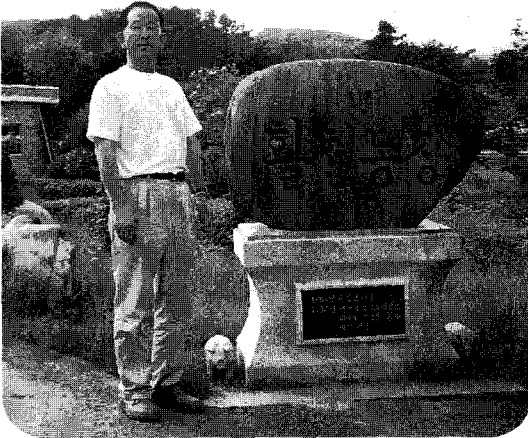
● 직원들은 각 담당별로 일정계획을 세우고, 매일 업무일지를 기록한다. 농장 상황에 대해 철저히 기록하고 성적을 분석하여 농장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잘못되었을 때는 바로 시정해 나가고 있다.(사진은 한상각 상무가 반출되는 분뇨의 양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 활천농장은 직원들에게 사택 제공과 성과급 제도 등을 통해 복지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활천농장 이대호 대표 /

“안전하고 고품질의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종돈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 활천농장의 이대호 대표

활천농장 이대호 대표는 위생관리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으며, 질병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양돈업 자체를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병이 컨트롤되어 경쟁력이 확보되기 위해서 계획적인 백신 프로그램 적용과 방역활동, 사양 및 시설·환경, 인력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돼지고기 시장이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시대가 왔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일당증체량이 높고 육량이 많은 돼지를 선호했지만, 현재는 안전하고 육즙이 많으며, 육질이 단단한 소비자들이 원하는 고품질의 규격돈을 생산해야 하므로 이러한 고품질의 돼지고기 생산이 가능한 종돈을 공급해 나가는 데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자만심을 갖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고 세심한 사양관리를 해야 불안요소를 없앨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대표는 “결국 양돈장은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

는 우수한 품종 형성과 철저한 방역·위생관리 및 질병 콘트롤을 통하여 안전하고 고급화의 돼지고기를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며, “그러한 돼지고기 생산이 가능한 종돈 개량과 보급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종돈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 인내가 투자되어야 하며, 사명감과 긍지가 필요하다.”며, “일반 양돈농가에 우수하고 청정종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양돈업과 종돈업은 공동체적 동반자 관계임을 잊지 말고 서로 도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대호 대표는 “향후 질 좋은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것은 물론 조경을 잘 하여 친환경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양돈장에서 소비자들이 돼지의 사육 과정도 살펴보고 농장에서 생산된 돼지의 전 부위로 만든 요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는 테마공원을 설립하는 것이 희망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대호 대표는 “돼지 유통과정과 수출부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출부위 소비관리를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며, 해외수출이나 북한에 돼지고기 보내기 등을 통해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이 이루어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들어 사료 값이 계속 인상되어 생산비 증가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세인하나 철폐가 되도록 정부지원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원산지 표시제가 관철되어 국내산이 수입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과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양돈**